

■ 편집자의 글 ■

이번 호모미그란스는 “종교와 인종주의”를 특집 주제로 다뤘다. 역사 속에서 종교와 인종주의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으로 우리 (we)와 다른 사람들(others)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준거의 틀로 작동했다. <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임병철은 교황의 신권정치를 배격하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종교관의 소유자로 평가되었던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의 신화도 재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리히 2세가 만든 무슬림 공동체의 건설 의도가 교황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극히 세속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특히 관용적 친무슬림주의자로 인식되었던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기존 해석을 반박한다. 다른 각도에서, 김만중은 프랑스의 라이시테(정교분리)의 역사적 초석이 된 드레퓌스 사건을 <조르주 멜리에스의 “드레퓌즈 사건”과 현실참여>에서 예술가라는 지식인의 활동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담론들이 만들어낸 이방인 타자들의 이야기와 당대의 시대적 메시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 논의한다.

그 외에도 신지혜는 논문 <근대 미국의 의료 시민권과 비시민의 의료권리>에서 과연 의료시민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이것이 과연 국민국가 담론을 해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국가주권의 하락을 상징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쟁한다. 이용일은 나치 유대인학살이라는 과거로 인종차별을 사회적 터부로 비난해왔던 독일 사회에 다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증폭되는 이유를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한

다. 즉, 이주민들에 의해 경제적 불안과 경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이 형성된 독일 중산층은 너무도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중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올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며 독일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노가 다시 이주민에 대한 강한 혐오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종현은 <프랑스 파견무관이 본 러일전쟁>에서 전쟁을 가까이에서 직접 관찰한 파견무관들의 전쟁 경험을 무시한 프랑스 외교부와 전쟁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관으로 인해 전쟁의 근대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멸적 결과를 야기한 프랑스의 전쟁 경험을 설명한다. 근대적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이러한 오관의 기저에는 아시아인의 신체에 대한 낮은 평가로부터 기인하는 서구인들의 인종주의적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었다.